



‘예배드림이 기뻐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 소식

성가대의 시작, 애찬회의 재개



▲ 성가대의 첫 찬양

올해의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의 표어는 ‘예배를 소중히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4:24)의 말씀을 중심으로 올 한해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해가 되고자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안식년을 마치고 카코가와에 돌아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성가대의 조직’이었습니다. 저희가 카코가와에 왔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것을 즐겨하지만, 아직 성가대가 없는 것에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성가대를 당장 시작할 수 없는 것 또한 안타까움의 하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는 계속해서 성도들과 성가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성도들 역시 성가대를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5월 21일, 성가대의 첫번째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샤론의 꽃 (シャロンの花)’이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 성가대의 첫번째 찬양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날을 위해 한 달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이날,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평균 출석 16명 중 성가대원은 12명으로 성도의 대부분이 성가대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 찬양드리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날은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었던 애찬회를 재개했습니다. 사실, 그 동안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는 예배 후, 애찬회를 통해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애찬회를 중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도 성도들로부터 애찬회 이야기를 듣고, 하루 속히 애찬회가 재개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 애찬회 재개

드디어 애찬회가 재개되었고, 성도들은 한 자리에 모여 준비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아직은 식사를 하지 않고, 간단한 빵과 차, 커피 등 다과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예배의 기쁨, 성도들이 교제하는 예배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프레 잼과 교구춘기성회

저희가 협력하는 일본홀리네스 교단은 4년마다 전국청소년대회인 유스 잼(Youth Jam)’을 개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계속 연기되었던 유스잼이 드디어 올해 7년만에 개최됩니다. 이에 각 지역별로 유스잼을 준비하는 모임인 프레 잼(Pre Jam)이 열리고 있습니다.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가 속한 키키교구도 프레잼을 열었고, 코다마 리리코 자매와 함께 프레잼에 다녀왔습니다.

간사이 지역의 믿음의 청년 청소년들이 함께 모인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한 유스 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프레 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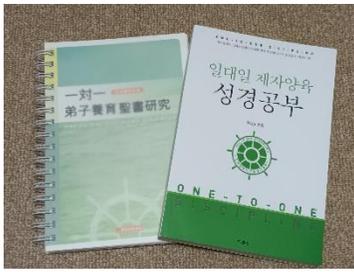
또한 5월 3-4일은 키키교구의 춘기성회가 열렸습니다. 작년의 춘기 성회는 황명아 선교사가 간증으로 섬겼는데, 올해는 반주로 섬겼습니다. 5월 4일 오전 집회의 반주를 담당하며 예배를 섬기고, 함께 간사이 지역의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 교회들과 함께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춘기 성회 반주

청년과의 성경공부



▲ M군과의 성경공부 교재

이준호 선교사는 교회의 청년인 'M군'과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고등학교 3학년 무렵 공황장애를 앓게 되어, 오랜 기간 치료 중에 있습니다. 대면으로 말을 할 때에는 어려운 점이 많지만, SNS를 통해 종종 저에게 성경에 대해 질문을 해왔습니다. 안식년 기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청년과의 성경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이에 M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M군은 흔쾌히 승낙을 했고, M군의 컨디션에 따라 월 2회 목요일 오전에 M군의 집에서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제자양육 교재인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 일본어 판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공부를 통해 M 군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족소식

저희 가족은 얼마 전 고베 바닷가에 가서 조개잡이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조개잡이를 처음 하는 민하와 너무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하는 어느 순간부터 일본어로 곧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간사이 사투리로 이야기했을 때에는 성도들이 모두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황명아 선교사의 기침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특히, 기도를 부탁드렸던 순간부터 기침이 멎기 시작해 기도의 힘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준호 선교사도 기침이 나기 시작해, 목소리가 나지 않아 수요 기도회를 실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많이 좋아져서 그 후의 예배와 기도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7월 1일부터 5일까지 부평제일교회 단기팀의 방문을 준비하는 등 바쁜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 일정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온 가족이 건강에 유의하고자 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본 깊이 알아보기 - '코로나 5류 이행'

지난 5월 8일부터 일본 정부는 '코로나 5류 이행'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감염병법에는 전염력이나 위험성에 따라 1~5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코로나는 2류에 해당되어 있어서, 실내외 마스크착용이라던지, 감염 시 자택대기와 같은 여러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5류로 새롭게 분류되면서, 이전의 제약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편입니다.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일본의 TV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판단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리에도, 그리고 마트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이 제법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의 개인 판단에 관한 TV광고



▲손소독제 및 체온계를 제거하는 기관

또한, 관공서나 공항, 호텔 등에서는 방문객들의 체온을 재고, 손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들이 있었는데요. 이것 역시 점차 사라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때에 백신접종증명서나, 코로나 음성증명서를 제출하던 의무도 해제되었습니다. 일본도 코로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에 방심하지 말고, 주의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카코가와 교회도, 이전에 비해 예배의 제한을 많이 해제했지만, 주의하고 있습니다.



♡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달 기도를 부탁드렸던 선교사자녀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7월25(화)-27(목), 아이치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준비와 재정 등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땅에서 선교사 자녀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주세요!

1. 카코가와 성가대를 통해 온 성도의 삶 속에 찬양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2. M군과의 성경공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M군의 몸과 마음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도록
3. 온 가족이 건강할 수 있도록(기침 감기와 체력 회복을 위해)
4. 부평제일교회 선교팀 방문(7월1-5일) 일정의 안전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5. 6월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기를

☎ 후원안내

- 연락처 : 이준호 : 080.4188.2604
카톡ID directed
황명아 : 080.7583.1855
카톡ID grace82gby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529-49085-948421
(예금주: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본부)